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3호 [루게 제24566호] 주체103(2014)년 6월 2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 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은 나라 아이들의 천아버지가 되시어 뜨거운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맞이한 평양애육원의 일군들, 교양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6.1절을 맞이한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원아들이 만경대유희장에도 가고 옥류관에서 국수도 먹었으며 일군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 운동회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명절을 보내고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원아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였다.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애육원의 교양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는데 교양원들이 술한 원아들을 맡아 수고가 많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게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당에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다음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이시며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불을 어루만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가락을 꼬으며 자랑하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쇠고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였다.

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

들마냥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박수도 쳐주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녁밥을 먹는 원아들에게 어느 음식이 맛있는가 물어주시며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해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잘 먹었구만, 원아들이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에서 보내준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이는가도 알아보시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키키운동을 비롯한 체력단련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애육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시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대를 이어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섬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섬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황병서동지, 최태부동지, 최룡해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을 돌아보시면서 개발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룡라도, 양각도와 함께 평양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속섬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특색있게 개발하자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과학기술 전당이 자리잡은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발전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지식보급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속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속섬에 건설하자고 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기지인 동시에

각이한 자료들을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봉사기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실내 및 야외 과학기술전시장도 꾸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을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것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속섬개발사업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평양의 판문에 자리잡고있는 속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대동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다와질것이며 평양시의 면모가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랑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명당자리라고,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속섬개발사업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고있는 물놀이장들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물미끄럼대를 설치할것을 받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현대적인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미끄럼대를 보시면서 제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는데 잘 만들었다고, 정말 멋있다고,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제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미끄럼대 제작을 통해서도 제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먼저 설치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현대적인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설치해주면 야영생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해수욕을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6월말까지 설치하여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기수, 돌격대의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전국각지에 물놀이장들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 기제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질 좋은 물놀이 기제들을 만들자면 설계를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며 원자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설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선군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주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나가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해산 출발

【해산 6월 1일밤 조선중앙통신】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

전군의 모범적인 군인들로 무장한 답사행군대는 혁명전통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선군조선의 만년제보인 주체의 혁명전통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인민무력부 일군들과 답사행군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모임 장소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입장하였다.

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엄향철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싸움준비완성과 군인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



주신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여기에는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피조기로 이어 시련의 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혁명가로 자라는 우리들처럼 행복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총련 청년전위의 깊은는 삶 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역세게 준비 시키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군력강화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로 쫓겨있다. 들을 조선혁명의 넓으며 생명의 백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은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칼날을 역세게 세워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모임은 끝났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기발이 수여되었다.

총실성과 억척만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원수들을 쳐물리친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작관주의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애, 간진 생활기풍과 학습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행군과정에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학습과 숙영 등 모든 생활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찬신하게 진행하여 누구나 오늘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백두의 후손, 혁명의 계승자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게 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군관판인 박철민, 안명진, 사관 박명진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칼날을 역세게 세워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모임은 끝났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기발이 수여되었다.

출발구령이 내리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대오 앞에 높이 모신 답사행군대원들은 최고사령관기, 당기, 공화국기, 답사행군대기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혁명군의 노래》,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대오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 나날 백두산혁명군대의 철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넘어졌다.

향광도와 해산시인의 책임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선렬들의 넓이 어린 혁명의 무기를 역세게 틀어쥐고 백두의 행군길을 앞장에서 꿋꿋이 이어나가는 군인답사대원들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행복의 요람에 넘쳐나는 어버이사랑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으로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가려는 우리 당의 은총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아 행복의 요람들마다에 어린이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제일 좋은것을 선물로 안겨주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물고기와 과일, 현대적인 생활설비 등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과 가정속에서, 가정유치원, 창광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태양의 촉복받은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주며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피는 후대중시사상, 미래사랑의 숭고한 정화이다.

철따라 알알이 잘 익은 과일들과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의 약품들을 보내주기도

명절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또 다시 베푸는 다심하고 한량없는 은정에 원아들과 어린이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와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물고기와 첫 물도마도를 받아안은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격정의 목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왔다.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동해포구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일떠세워주시고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도 만족하시다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물을 적시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과일들과 여러가지 종류의 향기로운 접시를 받아안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김정숙아씨, 경상유치

원, 창광유치원 아이들의 얼굴마다에도 태양의 빛을 받아 활짝 피어난 선군동지의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교양원들과 보육원, 학부형들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훌쩍이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창창할 미래를 확신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아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영양관리를 더 잘하여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역세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주조 여러 나라 의외대표들,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해외의 국수님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는 김정숙 녀성중앙위원회 위원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촉복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아 온 나라 어린이들과 여러 나라 어린이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같은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안겨주셨는데 대하여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해마라기처럼,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역세게 자라 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랑받는 인민보안원들

아래단위 일군인 전경호동무와 인민보안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몇몇전 전경호동무는 자체로 공우유를 생산하여 부청명을 지나가는 운전사들에게 공급해줄것을 발기하였다. 그의 세가는 인민보안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리철남, 전국철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은 점심간을 리용하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들도 갖추어놓고 모래구이장지로 만들어놓아 운전사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드는 길에서 인민보안원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의 목소리는 두터운 책의 갈피들에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 외무상과 알제리 의무상 회담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외무성 총서기,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 공보총국장, 의례총국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우리 학생들 국제청소년연주가 및 작곡가콩쿨 《음악예술》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우리 나라 김학현, 최금성학생들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연주가 및 작곡가콩쿨 《음악예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재능있는 청소년음악가들을 찾아내며 세계 여러 나라를사이의 문화적협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콩쿨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340여명이 참가하였다.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김학현, 최금성학생들은 24일 기악안сам블부류에 출연하였다. 그들은 목관악기들인 호고트와 오보에로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곡목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심사원들과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메카식에서는 높은 예술적향을 보여준 우리 학생들이 기악안сам블부류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음악전문가들은 조선학생들이 전문연주자들 못지 않은 훌륭한 연주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목관중주발전전진망이 창창한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해 바쳐온 30여년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들모임이 1일 만경대유치원에서 진행되었다.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축하행사를 벌였다. 이날 유치원 어린이들은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축하행사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같은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안겨주셨는데 대하여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해마라기처럼,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역세게 자라 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에 가던 학생들과 학부형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한 교육자가 있다. 그가 바로 교원 흥판순동무이다. 두 대 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후대들을 조국의 귀중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흥판순동무가 지난 30여년간을 후대교육사업에 고스란히 바쳐오며 한 힘의 원천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그는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은정에

6.1국제아동절 64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이러 실화무대 및 예술소품 공연이 펼쳐졌다. 물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며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뜨거운 후대사랑의 정열이 넘쳐있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을 전하는 출연자들의 감격에 넘친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무대에는 노래와 춤 《원수님

오신 날 기쁜 명절날》, 가야금독주 《나야 꽃봉오리》, 녀중창 《영양까지》, 체육무용 《조선의 꽃봉오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에서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선군조선의 행복동무,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꽃봉오리들이 자기들의 씩씩한 기상을 남김없이 보

여주었다. 씨름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씨로 꽃줄을 넘겨가는 어린이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은 모임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우리 어린이들과 여러 나라 어린이들은 공안고 어머니의 손 잡고 달리기, 공차놀이, 놀이감 따기, 바총당기기 등을 즐겁게 진행하며 친선의 정을 한껏 나누었다. 경기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함께 어울려 춤도 추고 유희시설들도 리용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흥판순동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세 세대들로 자라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지방에 다녀올 때에는 그곳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도다. 흥판순동무의 관심깊은 마음에서 출발한것이다. 흥판순동무가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기울인 사색의 나날들을 짚자면 헤아릴수 없다. 본사기자 김성준

그가 지금 리용하고있는 가정 연락수첩도 그는 단순한 연락수첩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학생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학과실력수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적어두곤 하였는데 이것은 학부형들과의 면회를 보다 밀접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요양에 큰 도움이 되었던것이다. 흥판순동무의 교육교양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당에서는 교원영예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사랑의 선물들도 안겨주었다. 오산도 흥판순동무는 교원은 직업적혁명가라는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준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축하행사를 벌였다. 이날 유치원 어린이들은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축하행사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같은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안겨주셨는데 대하여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극악한 파쇼광의 후예인 박근혜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인민을 우롱하는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섞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망동

《세월》호대참사로 어수선한 남조선에서 6월 4일 지방자치선거가 있게 된다. 이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후보들의 등록이 끝나고 5월 22일부터 각지에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박근혜당의 집권후 처음으로 되는 전지역적인 선거로서 현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있으며 그로 하여 선거결과에 따라 남조선의 정치정세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모조리 장악하여 남조선정부를 보수세력의 독판치기무대로 만들려는 《세누리당》과 그의 반역정체를 단호히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진보민주세력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대결전으로 되고있다.

《세누리당》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고 집권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인민적악당과 무능관, 패륜배덕으로 《세월》호대참사를 빚어낸 피회전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항거의 불길이 되어 세계적으로 타오르고있다.

도처에서 《절대대 가만있지 않겠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앞선 정권 몰라나라.》 등의 헤침들이 터져나오고 촛불집회와 시위들이 매일같이 이어지고있다. 이것은 집권여당인 《세누리당》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세월》호참국이 계속되는 속에 선

거가 치르어질 경우 참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반역패당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모략과 기만술책을 또다시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세누리당》패거리들은 선거가 박두해오자 그 무슨 《세난대응체계수립》이니, 로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복지》니, 《녀성일자리확충》이니 하는 빛갈좋은 공약들을 람박하며 역격계 놀아내고있다. 여기에 피회전자까지 합세해나서고있다.

박근혜가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한 민심의 비발치는 사죄요우앞에서 도입을 꼭 다룰때까지 굳이 선거주보등록이 끝난 후에야 《대국민담화》농을 벌린것은 궁지에 몰린 《세누리당》을 돕기 위한것이다. 《인적혁신》의 간판 밑에 피회전무총리와 청와대 안보실장, 정보보안장 등 무능하고 죄많은자들을 다 인민들로 교체하려 하는것도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늦추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피회전세력은 반 《정부》투쟁에 앞장선 의로운 시위자들에게 한탄 무차별탄압도 서슴없이 강행하고있다.

피회들은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한 민심의 목소리들에 대해 《류언비어》라 뉘나 하고 고야대면서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면서도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또한 폭압경찰을 대대적으로 내몰아 《세월》호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평화적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는가 하면 통일투쟁에 나섰던 대학생들과 《세월》호

회생자추모집회 참가자들에게 닥치는대로 폭행을 가하였다. 추악한 권력악마를 위해 피호르는 근로대중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잘질하고있는 반역패당이야말로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자들인가.

그뿐이 아니라, 최근 피회들은 민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반 《정부》기운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투적수법대로 《북풍》 조작작동 등 기술을 부리고있다. 터무니없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요란하게 내뿜었는데 그 하단 《당장 없애야 할 나라》니 뉘나 하면서 동족의 준엄높은 체제를 가장 악랄하게 헐뜯었다.

또한 얼마전에는 서해해상에서 우리 함선들에 선봉질을 가하고는 뺨뺨대며 고대우리가 먼저 포사격을 가하였다는 남조선전에 열을 올렸다. 모략적인 반공화국도발사동으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지방자치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는 피회전세력의 흉악한 망동은 실로 엄청난 단계에 이르고있다.

박근혜당이아말로 인민들에 대한 기만우롱과 정치사기협정에 이골이 난더러운 시정배부리이다. 이런자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득세하면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더욱 몰수리치는 불행과 재난이 들끓어오르게 될것이다.

남조선전세력의 기간적이며 반역적 인성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당은 《민주주의》, 《사민들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그 공약들을 다 깨버리고 《유신》시기의 악명높은 파쇼독재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려서 그에 태하여 반인민적악당과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이 광분하고있다.

현 피회정권의 야만적인 파쇼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정당, 단체들의 합법적인 활동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초보적인 인민대중 무차별 유린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은 날로 심화되고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잃고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세월》호대참사와 같은 터무니없는 재앙은 끊이지 않고있다. 박근혜당의 파쇼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세누리당》의 귀탕승은 거짓말에 넘어가 반역패당에게 표를 찍은것을 두고두고 가슴치며 후회하고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세누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이 이제 또다시 반역패당에게 속아넘어간다는것은 민주주의의 완전한 말살, 근로대중의 비참한 죽음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의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근로대중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첨예한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사회를 만들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우리의 준엄과 체제를 약탈하게 걸고드는 남조선피회들의 도발적악행이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고있다. 박근혜당은 얼마전 피회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 《나라 아닌 나라》, 《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함부로 헐뜯어대며 못내 나중에는 《빨리 없애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쉼대없이 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여 여론을 오히려 독하게 하는 극도로 격화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추호도 목과할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무참히 바다에 투수시킨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행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총폭발되고있으며 반역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불길이 세차 타르고있다. 때이상 해어나올수 없는 위기에 당치 못하고있는 박근혜당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남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의 초점을 나쁘게 돌리기 위해 체제대결홍심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피회들이 위기에 몰린 때마대 서적의 상투적수법이다.

올해 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기운이 감돌고 남조선 각계에서 동족의 선의에 적극 호응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며 박근혜당은 비망청을 중지할때까지 반공화국의 탄압행위를 멈추고 기쁘게 《북인권》을 강조하지 말고 《비방중상수법》이라는 개념을 늘어놓으며 미국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도발사동에 전례없이 기술을 부렸다. 지난 3월 미국의 폭주자키시기는 모략적인 유엔인권리사회를 모략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그 누구의 《인권상황 관련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모욕하는 《결의안》을 꾸며냈다. 이 모략 문서의 채택을 공동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면 앞에서 날뛰던 것이 바로 남조선피회정권이다.

유엔인권리사회가 발표했다 《보고서》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보고서》를 피를 시고 달안간 추악한 인간선물들의 《결의안》이라는것을 이렇듯 짓어낸것으로서 칠드칠미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추종해버리고 발광하는 미국과 피회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것이다. 하기에 이 모략문서가 발표되자마자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과 정세분석가들, 국제사회는 《매년적이며 비합리적인 결의안》, 《변질자들이 사 설정

때 《복을 응징하지 못했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니, 《잠잠이 다 되지 않는다.》느니 하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 이자는 최근 언론들이 청와대 안보실장후보로 자기를 거론하자 더욱 기세가 올라 박근혜에게서 점수를 따려고 몰인정 불신을 받고 헤집고있다. 피회군부호전망들의 이런 무분별한 망동은 북남사이에서 그 후과를 예측할수 없는 무장충돌화까지 조성하고있다.

박근혜가 피회호전망들의 리성없는 망동을 부채질하고있는것은 더욱 위험천만하다. 이미전부터 《북포로》설과 관련하여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떠든 박근혜는 얼마전에도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불러놓고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안보대세강화》를 부르짖었다.

피회정권자의 로골적인 비호, 조장은 피회군불향당들을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모험에 조적 구멍을 내고있다.

남조선에서 피회군부가 날뛰 때면 어김없이 중대한 사건들이 터지곤 하였다. 《세월》호대참사로 하여 최악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박근혜가 군부강세들과의 야합으로 총격적인 사건을 조작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이 북침해전정보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피회군부호전망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절대대로 편안할수 없으며 남조선에 불행과 재난이 차체지는것을 막을수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떨림이 제격이다. 불순한 정치적목발에 민족적참화까지 곱아오는 피회호전망들을 하루빨리 징벌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우리의 무차별하고 철저한 타격적인 시적되던 피회군부망동들을 싸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나름으로 경고하는데 박근혜당은 서 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군사적도발망동을 당장 경계시켜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1 000만명서명운동 전개, 민주로총이 6월투쟁계획 확정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대책진상수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5월 29일부터 1 000만명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를 초래한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가족들과 민중이 참가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춘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남조선 각계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지역의 16개 시, 도에 설치된 분향소들을 찾아 서명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남로 총합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합투쟁기간으로 선포하였다.

동시에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등을 주요과제로 내걸고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합투쟁기간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5월 29일 민주로총은 서울 청계광장 시국봉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체 사무총장구수규언과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대응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지난 24일 《세월》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투

체제대결홍심이 비낀 모략광대극

우리의 준엄과 체제를 약탈하게 걸고드는 남조선피회들의 도발적악행이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고있다. 박근혜당은 얼마전 피회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 《나라 아닌 나라》, 《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함부로 헐뜯어대며 못내 나중에는 《빨리 없애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쉼대없이 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여 여론을 오히려 독하게 하는 극도로 격화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추호도 목과할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무참히 바다에 투수시킨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행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총폭발되고있으며 반역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불길이 세차 타르고있다. 때이상 해어나올수 없는 위기에 당치 못하고있는 박근혜당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남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의 초점을 나쁘게 돌리기 위해 체제대결홍심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피회들이 위기에 몰린 때마대 서적의 상투적수법이다.

올해 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명분 없는 대결조치 해제하라!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이 5월 24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반공일적인 《5. 24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5. 24조치》를 위해 맺은 데로부터 4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가 단절된 지 4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라고 제안하였다. 단체는 《5. 24조치》가 북남합력을 가로막고 남조선의 기업가들과 주민들에

대한 큰 피해를 입힌 명분 없는 대결조치에 불쾌하다고 비난하였다. 1 20여개 단체가 마련된 단군민중총회통일회의는 성명에서 《5. 24조치》는 동족대결을 추구한 리명발 《정권》의 잘못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이 조치로 하여 북남합력사업들이 파괴되고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안전을 위해 《5. 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양인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의 의원들도 5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5. 24조치》를 철회할것을 피회당에게 요구하였다. 성명문은 《5. 24조치》는 북남교류협력을 전면중단시키고 각계 인사들의 공화국북반부방문을 불허하는 등 북남관계

를 심히 해쳤다. 또 주장하였다. 북을 제재하겠다고 시행한 이 조치로 하여 오히려 남측기업들이 더 고

통방고이며 북남경제협력의 토대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개탄하면서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통일대학》 뿐만 아니라 《5. 24조치》의 전면적인 철회를 북남교류 증대시키는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5. 24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장기중 단면적 단면적 판방을 조속히 재개하며 북남경제협력과 북남관계 정상화를

재미동포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

재미동포인 인터넷신문 《민중통신》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이 5월 25일 미국의 보스턴에서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와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는 우류교향악단 단장 리준부부부를 비롯한 재미동포들과 보스턴지역의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근본문제해결,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세월》호 참사를 빚어낸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대학생들

살인 《정권》이 저지른 극악한 폭압만행

최고경기도 안산의 단원경찰서 정보파소속 형사들이 《세월》호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사살하고 사찰행위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박근혜가 기만적인 《대국민담화》 발표농을 벌리던 날 전도의 병목항으로 가고있는 피해자유가족 30여명의 뒤를 밟다가 달이 《아이들을 구할 때 이랬으면 죽지 않았을것이다.》고 통곡하면서 길을 옆걸음 요구했지만 파쇼광들은 차량과 병력으로 차단벽까지 만들어놓고 그들이 청와대로 갈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참사사고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피회정권의 폭력진압사동도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참사추모 5. 19국민초불행행동에 참가한 각계중 군중들은 중으로 대를 행진하였다. 이때 파쇼정찰은 시위참사자들에게 무작정 달려들어 115명을 연행하였는 폭격을 감행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도 서울에서 《세월》호희생자들을 추모하여 침묵행진을 벌리던 청년 100여명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강제로 행진행하는 망동을 부렸다. 경찰차량들은 이 날 집회를 막고 돌리기 위해 체제대결홍심을 부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5월 24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초 불집회장도 경찰차량들의 파쇼공로무장으로 화하였다. 이날 경찰의 야수적탄압에 의해 많은 시위참가자들이 부상당하고 구속되고 위헌행, 민주로총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금 피회정권의 침, 시위를 강세화시키기 위해 날로 로소를 가하지 않고 폭행을 하고있어 나아민 중학생들까지 마구 잡아가고있다. 피회정권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세월》호사고와 관련한 공정한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도 박해를 가하고있다. 피회정권은 자기 존재와 함께 세 수괴에 들어박혀 버리고있는 그 범죄자에 대한 체포를 그

청와대의 외곡책동을 규탄

5월 23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청와대가 《세월》호참사수습과 관련하여 박근혜의 《침착》을 부각시키는 동영상을 만들어 내뿜다 죄자유가족들의 비난을 지내오고있다. 5월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를 내세우는 동영상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4월 17일 사고현장을 둘러보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국민담화》에 이르기까지의 박근혜의 행적이 담겨져있다. 동영상에는 또한 박근혜가 《대국민담화》 발표시 억지논리를 흘리는 장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5.24조치 규탄 집회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현철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

허물어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지위

현시대의 가장 팽목한 한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아마 정세전문가라면 대부분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것이라고 대답할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른 나라들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이미 미국의 지정확권론자이며 패권주의의실용자인 조지프스미트(조지프스미트)는 미국의 패권이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도 미국의 국제적지위가 돌이킬수 없는 손상을 입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미국대통령인 오바마도 세계가 다극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력사가 자기 발전의 궤도를 타고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힘이 함부로 통하지 않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들을 망탕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힘을 시위하는 첫 실험장으로 되었고 이라크가 그 다음번 대상으로 되었다. 미국은 거지강상태라고 생각하면 유언도 무시하였다.
한 의식은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전황이 되살아났다. 이라크전쟁은 세계무대에서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전황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보도하였다.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미국의 지명공격을 자주 받는 나라는 필연코 그의 전쟁대상으로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 미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타격할수있으며 저들은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극도로 오만한 《특권적지위》의 깊이를 자라게 되었다. 미지배층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옳고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그들과 제안을 가져다주는 침략과 간섭행위도 《정당》을 위한다고 떠들어대 정당화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무시

하고 그 나라들의 명토를 침범하여 무인기공습, 《테러본자제포작전》과 같은 군사적행위들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의실용적 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속전속결로 끝낼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던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힘은 점차 진해져갔다. 왜냐하면 《반테러전》의 명목밑에 벌려놓은 그 전쟁들은 야구방망이로 파리를 잡겠다는것과 같은 우둔한 미치광이짓이었기 때문이다. 미지배층은 반미항쟁세력의 기습공격에 맞아죽은 자국민들의 시체우에 삽자기를 꽂아주는 꼴아꼴만 하지 않고 안되었다. 벌수없이 오바마행정부는 부패행정부가 남겨놓은 유산인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미군철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이라크에서는 몇년전에 철군시켰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올해말에 일부를 철수하기로 타산하고있다. 미군철수후 이라크는 교과 및 종족간 싸움으로 내전에 말려들고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에 적대적인 이라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있다. 이라크를 자기의 군사식민지로 만들어 이란 등 중동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파탄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영구강점하기 위해 걸로리는 철군을 선포하고있고 뒤에서는 근 1만명의 미군을 남겨놓고 영구주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금 미국의 비로필에 수립된 아프가니스탄의 전 정권은 미군사기를 설치하고 영구주둔시키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있으며 미공화당원들속에서는 철군 그자체가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문제를 놓고 전쟁을 시작했다는것보다 끝내는것이 더 어렵다는 맥빠진 소리를 하였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나가고있다.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는 나라들이 늘

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감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가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우려를 품고있는 나라들사이의 협력도 강화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사이의 합동군사연습들이 자주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는 중로해군합동군사훈련 《해상협력-2014》가 진행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두 나라는 매년에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로씨야로부터 현대적인 전투비행기를 구입하려 하고있다.
로씨야 역시 중국에 현대적인 전투장비들을 넘겨줄 의향을 표시하고있다.
중국과 로씨야는 손을 맞잡고 미국의 아시아《예군행》전략에 공동으로 맞서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 동반자로서라고 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요구와 지시에 불복해나가고있다. 오래동안 미국의 동반자로 있었던 에스토니아는 오늘에 와서 미국보다 로씨야와 더 가까운 지내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의 《중재자》로 나선 미국의 지시에 코방귀를 퍼며 엇서나가고있다. 프랑스는 로미판게가 적대적으로 변하여가는 속에서 로씨야에 대한 합작관계를 계속 내밀것이라고 하고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우기를 비롯하여 주요국제문제들을 제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밀리우고있다.
미국은 세계정세를 판타지 놀이대로 생각하고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주재시장위기는 미국금융구조,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낱알이 드러냈다. 이 위기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져 자본주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서방나라들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과정에 미국이 주도하던 8개국수뇌회담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지금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20개국수뇌회담과 브릭스들이 세계경제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미국달러지배의 국제금융통화

제도가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이 지역 및 민족화해들을 무역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은 두 나라사이의 대외무역에서 루블과 인민폐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여러 외신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1위를 차지할 전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세력경쟁들이 형성되고있으며 따라서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재분할되고있다.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어떻게 해서나 유지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여러 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고 날뛰는 한편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을 내놓고 이 지역을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있다. 미국은 절대대로 잃고있는 패권적지위를 되찾을수 없다.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군사예산을 비롯하여 국내문제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당파싸움을 벌리고있다. 다른 나라들의 국가수반들에 대한 협박행위를 빼지 않으면 비행이 드러나 미국은 국제적으로 몰리우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맹국들도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현실은 이렇다.
미국은 시대의 변화발전을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배와 패권을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은 고대로마제국이 나 파소도이릴란트 등 패권국자들의 운명에서 웅장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들은 지배와 패권이 아니라 자주를, 주권침해를 이어나 주권존중을 요구한다.
시대발전은 바로 이 요구에 따라 계속 전진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준렬히 규탄
로르니아와 스르비아 정당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로르니아사회주의당은 최근 인터넷홈페이지 《주체사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을 행각하면서 저들의 목적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성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얼마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같은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진상태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펼쳐나선 조선반도의 그 주범에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회담에 즉시 응해야하라고 할것이라고 같은 강조했다.
같은 날 로르니아사회주의정당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트르플로르》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은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는 현재 전쟁이 터질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연례국회》라는 간판밑에 남조선당국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였으며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대통령이 조선반도 주변지역을 행각하면서 노리는 목적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성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얼마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같은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진상태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펼쳐나선 조선반도의 그 주범에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회담에 즉시 응해야하라고 할것이라고 같은 강조했다.
같은 날 로르니아사회주의정당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트르플로르》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은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는 현재 전쟁이 터질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연례국회》라는 간판밑에 남조선당국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모든 적대적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경고

판문점 우리측 위수경무장이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최근 적야행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된 판문점에서 미군측이 여러가지 불순한 도발성행위를 보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측 위수경무장이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지난 5월 27일과 2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판문점 조선측 위수경무장이 미군측이 최근 판문점에서 도발행위를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판문점구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적대적행위들을 걷어치울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판문점 조선측 위수경무장은 최근 미군측이 예민한 판문점

정탐배들은 징벌을 면치 못한다

의 아프가니스탄행각을 계기로 백악관은 저들이 뻔 세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없지 않은 몰리다 다시 주어진것에 참가하게 될 판관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에 어느 카탈주제 《지부책임자》의 이름도 있었다.
이 실수에 대해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군부판관들이 보도기관들을 명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백악관보안사무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지부책임자》는 미중앙정보국이 해당 나라에서 정탐활동을 책임진 인민에게만 주는 칭호라고 하였다.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백악관보안관들의 실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백악관의 고위인물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부랴부랴 카탈주제 《지부책임자》의 이름을

오늘의 세계
오펜시프의 핵전쟁 위협
이 중국방문을 마친 후 아무르주에 도착하였다. 그가 이번에도 아무르주를 방문하게 된것은 2013년에 원동지방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폭탄피해를 가시기 위한 노력에 따른 박자를 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한 살림집들을 건설되고있는

마을을 돌아보면서 사회봉사 및 운수하부구조건설을 빨리 진척시킬데 대해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의 콘크리트해후를 가시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지역방문과정에 우주로켓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도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및 국제적계획에 따라서 다른 사명의 우주기구들을 개발할수 있도록 우주로켓개발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의 회담에서 로씨야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로 되는 싸야노-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4호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아무르주방문의 마감일정은 로씨야대통령은 국립동북호수를 방문하였는데 아무르주에서 사는 범에 대한 연구 및 보존정책계획도 로해하였다.
부견대통령의 이번 아무르주 방문은 로씨야가 원동지역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큰 힘을 넣고 있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실증이다.
그러나 원동지역발전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얼마전 부견대통령은 한 회의에서 정부가 원동개발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모두가 원동개발이 선차적방향이라고 말하고있지만 솔직히 말하여 이 사업이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실지로 로씨야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원동지역발전을 위한 선차적인 투자계획목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조차 정해져있지 않다 고 한다. 또한 새로운 국가계획에 여는 투자차도 조건들을 포함하여 일련의 하부구조조들이 반

영되어있지 않고 원동주민들을 위한 저당대부의 특혜조건들이 작성되어있지 않다. 실제로 2016-2025년 《구원책》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이 작성되지 않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 부견대통령은 원동개발사업 진척정도에 대한 문제를 제출할것을 원동발전상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한편 로씨야수상 메드베레브는 원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조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협조에 관한 회의에서 원동과 싸야노에 관한 협의회에서 원동과 싸야노에 투자할 사람들을 비롯한 국내외투자자들을 위한 조건을 급격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나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씨야동부지방의 투자 매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장벽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우리 나라에서 고도기술성업을 비롯하여 각이한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시기에 들어와 로씨야는 원동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동지역에서의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고 국내외투자자를 늘이는 등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외신들은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는데서 원동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고리로 보고있는 정부의 관심속에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평화적핵력을 수호할 입장 전명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지난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적핵력을 수호할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정부는 서방의 부당한 제재와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자기의 평화적핵력을 끝까지 고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은 핵문제에서 언제나 공평하고 명백한 입장을 견지하여왔으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자코비 지레이올레키사 주마가 지난 5월 24일 대통령취임식에서 연설하면서 전체 인민이 새 사회건설에 펼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인민은 인종주의의 후과를 가시고 자유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칠줄 모르며 투쟁하였다
대외언급과 국제공명등에 이를 반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세계적범위에서 테러행위들이 날로 우세해지고있는데

일조우호 니이가다현련락회 결성
일조우호 니이가다현련락회 결성식이 지난 5월 11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다현의 각계 인사들과 흥련 니이가다현본부 일군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현련회결성

사회적진보와 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
환경보호 노력
중에서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중국국무원 판공정은 최근 2014-2015년 에베르티기질약 및 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방안을 발표하였다.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이 방안에는 에베르티기질 약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있다.
온반로제트기 발사
로씨야가 지난 5월 23일 블레즈크우주발사장에서 운반로제트 《로코즈프》를 발사하였다. 3개의 군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제트는 예정된 궤도에 성과